논어 14편 헌문 20장 · 원문·풀이

子言衛靈公之無道也。康子曰：「夫如是，奚而不喪？」孔子曰：「仲叔圉治賓客，祝鮀治宗廟，王孫賈治軍旅。夫如是，奚其喪？」

독음 · 자언위령공지무도야 강자왈 부여시 해이불상 공자왈 중숙어치빈객 축타치종묘 왕손가치군려 부여시 해기상

쉬운 풀이(요약) · 위령공에게 도가 없어도 외교·제사·군무를 맡은 인재들이 제 역할을 했기에 나라가 버틸 수 있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言 말씀 언 언 / 衛 막을 위 위 / 靈 신령 령 령

公 공변될 공 공 / 之 갈 지 / 無 없을 무 무 / 道 길 도 도

也 어조사 야 / 康 편안할 강 강 / 曰 가로 왈 / 夫 지아비 부 부

如 같을 여 여 / 是 이 시 시 / 奚 어찌 해 해 / 而 말이을 이

不 아닐 불 / 喪 죽을 상 상 / 孔 구멍 공 공 / 仲 버금 중 중

叔 아재비 숙 숙 / 圉 마부 어 어 / 治 다스릴 치 치 / 賓 손 빈 빈

客 손님 객 객 / 祝 빌 축 축 / 鮀 모래무지 타 타 / 宗 마루 종 종

廟 사당 묘 묘 / 王 임금 왕 왕 / 孫 손자 손 손 / 賈 값 가 가

軍 군사 군 군 / 旅 군사 려 려 / 其 그 기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